

‘야나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광주 공연

15일 ACC... ‘민주’ 드보르작 연주
피아니스트 루카스 본드라첵 협연

체코를 대표하는 야나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공연이 15일 오후 7시30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ACC) 예술극장 극장 1에서 열린다.

체코의 전통음악을 간직한 야나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세계 전역의 공연장에 오르며 체코 출신 작곡가 야나체의 음악을 알리는데 노력하고 있다. 고전에서부터 현대음악까지 폭넓은 레퍼토리를 미국, 한국, 독일, 오스트리아 등에 초청돼 세계적인 지휘자들과 연주활동을 하고 있다.



루카스 본드라첵



야나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제공〉

지휘를 사사했다. 이후 체코슬로바키아 오케스트라의 수석지휘자로 활동했고 프라하 국립극장 발레단 오케스트라의 상임지휘자를 역임했으며 슬로바키아 필하모닉의 종신 객원지휘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프라하 시립 오페라 예술감독이자 상임지휘자로 활동했으며 브루노 필하모닉의 명예 단원이기도 하다. 모차르테움, 바흐 플레기움, 상해 방송, 자그레브 필하모닉, 서울시향 등 수많은 오케스트라와도 협업했다.

피아니스트 루카스 본드라첵은 2016년 퀸 엘리

자베스 콩쿠르 1위를 수상했고, 2017~18 시즌 도쿄 산토리 홀, 모스크바 교향악단, 네덜란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안트워프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협연하며 데뷔했다. 4살 때 처음으로 공개적인 연주를 시작한 그는 2002년, 15살 때 체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블라디미르 아슈케나지와 데뷔한 후, 그 다음해인 2003년 미국 주요 도시에서 공연을 했다.

파보 예르비, 야닉 네제 세겐등의 지휘자와 함께 작업했다. 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광주·북경작가 국제교류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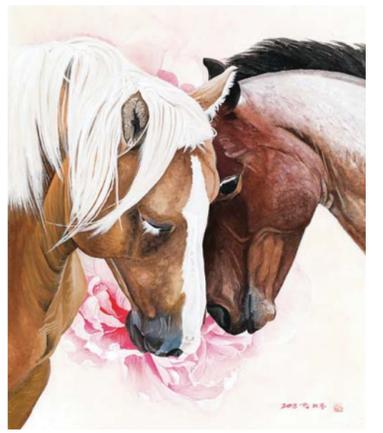
한국전업미술가협회 광주지회 주최
8~12일 북경 송창 우기미술관

광주·북경 전업작가 국제교류전이 8일부터 12일 까지 북경 송창 우기미술관에서 5일간 개최된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이번 교류전은 한국전업미술가협회 광주지회(회장 박지택)가 주최가 돼 진행되는 행사로 참여작가들은 서양화, 한국화, 조각, 공예 등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중국의 문화예술의 중심지인 북경과의 교류전은 양국의 문화예술 발전에 큰 의미를 지니는 행사다. 북경에는 광주시립미술관 북경 창작센터가 자리하고 있어 광주와 북경 작가들의 교류도 활발한 편이다.

이번 전시에는 광주 지역에서 국내작가는 강남구·강영자·강희성·김영화·차향기·최재영·최향·김하기·김혜수·양호열·윤일권·이순행·정예금·



김해웅 작 'Love is'

박지택 작가 등 53명이 참여했으며 중국에서는 자오가이 등 21명이 작품을 내놓았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스위스 민속음악회, 9일 광주박물관

‘박물관에서 울려 퍼지는 요들송’
국립광주박물관(관장 김승희)은 ‘광주시민과 함께하는 스위스 민속음악’ 음악회를 오는 9일 오후 4시 교육관 대강당에서 진행한다.

이번 음악회는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광주엔시안요들클럽’의 공연이다. 긴 호른인 ‘알프혼’으로 연주하는 ‘Uf de bankialp’를 첫 무대로 관객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요들송을 들려준다.

특히 이번 공연에서는 외르겔리, 카우벨, 우드스폰 퍼포먼스 등 평소 접하기가 어려운 스위스 민속악기와 노래를 만날 수 있다.

올해 창립 42주년을 맞는 ‘광주엔시안요들클럽’은 2016년 전국 10대 우수 공연단체로 선정됐으며, 2019년 광주프린지페스티벌 참여 등 매년 30여회 공연을 진행하는 음악 동호회다. 무료 공연이며 누리집 사전 접수 및 현장 접수를 통해 관람할 수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가수 기현수 2집 기념 콘서트 9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가수 기현수가 ‘기현수 The Poem Sketch 2집- 죄 없는 이야기’를 출판하며 기념 콘서트를 갖는다. 9일 오후 7시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

기씨는 1984년 MBC 대항가요제 출신으로 광주 MBC 별밤 가곡과 노래패 ‘꼬두메’ 멤버로 활동했다. 2017년 기현수 The Poem Sketch 정규 1집 ‘작정’에 이어 2년만에 다시 발표하는 이번 앨범은 1930년대에 영랑, 박용철, 정지영 등과 함께 활동했던 강진의 시문학파 시인 심현구의 시노래다.

이번 공연에서는 김영랑의 첫 번째 부인이 일찍 세상을 떠나자 영랑을 위로하기 위해 쓴 ‘어린 너는 산 새처럼 가벼리고’와 김현수 시인의 자화상인 ‘검정 비둘기’를 비롯해 ‘초보운전’, ‘섬 이야기’, ‘내가 가장 아프다’, ‘사랑은 갇혀있다’ 등을 선보인다.



기씨는 세월호 사고로 어린 아이들을 떠나보낸 부모의 아픔과 그리움을 ‘어린 너는 산새처럼 가벼리고’에 담아 냈다.

이번 공연은 뮤지컬 ‘김정호 하얀나비’ 주연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씨의 아들 기드온이 게스트로 출연해 아들과 아버지가 함께 부르는 부자밴드 코너도 마련한다. 연주는 박성연 밴드가 맡는다. 입장료 2만원.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협력·통일시대 종교의 역할’

전남대종교문화연구원, 오늘 학술대회

사회갈등 극복과 평화와 화해, 협력을 모색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전남대종교문화연구원(소장 송오식 교수)은 오는 8일 오후 1시 교내 법학전문대학원 2호관 광주은행홀에서 ‘협력·통일시대 종교의 역할’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대회에는 기독교계의 지성인이며 사회운동가인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 북한학 박사 사제 1호인 강주석 신부, 탈북자문제 박사학위를 취득한 전득안 목사, 통일문제전문가 안교성 교수가 각각 기독교적 입장에서 남북화해와 통일담론을 발표한다.

연구소는 “통일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통일에 대한 접근방법이 각자 다를 뿐만 아니라 갈등지수가 최고조에 이른 한국사회에 대해 기독교적 입장에서 한국 통일담론에 대한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복합문화공간·성평등 공동체 실현 위해 노력”

김미경 광주여성재단 신임 대표이사

“우리 지역 여성계의 숙원 사업이었던 복합문화공간 조성과 함께 여성·가족을 위한 정책실현, 성평등 공동체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6일 광주여성재단 김미경(55) 신임 대표이사가 기자 간담회를 갖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김 대표이사는 “2011년 출범 이후 8년간 여성가족정책연구, 지역여성네트워크 구축, 성평등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꾸려왔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지역의 정책환경이 바뀌면만큼 박사급 연구원 등을 충원해 재단의 기능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내년 주요 사업 계획도 밝혔다.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만들기 실천본부’ 운영과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 심포지엄 등이다.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만들기 실천본부’는 광주시의 ‘아이키움 행복한 광주’ 정책의 첫번째 프로젝트다. 아이친구 센터(폴센터 1279) 운영, 입원 아동돌봄서비스 등으로 구성된다. 결혼과 임신, 출산, 돌봄 등 관련 지원 정책을 종합해 제공하는 원스톱 정보제공 시스템이다.

입원아동 돌봄서비스 사업은 맞벌이 가정에서 자녀가 입원했을 때 생기는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병원아동보호사를 파견하는 제도로 지난



10월부터 진행 중이다. 또 내년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통해 1980년 5월 당시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여성들의 활동에 대한 역사적 가치를 조명할 예정이다.

김 대표이사는 “재단이 내년에 새로운 곳으로 거처를 옮길 예정”이라며 “지역 여성들을 포함한 일반 시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을 모색중이다. 이사 후에는 전사부분에 주력해 누구나 쉽게 관람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광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 대책을 위한 사업 뿐 아니라 ‘시민과 더불어 성평등 광주 실현’을 위해 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대표이사는 사경대 대학원 사회학 석사를 졸업하고 독일 보훔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서 여성 정책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광주여성노동자회 대표, 광주여성연합 공동대표, 한국여성학회 이사와 대외협력위원장, 한국여성연구소 부소장 등을 역임했다. /전은재 기자 ej6621@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보세요”

국제보청기

특별 월 회원 모집

신양파크호텔 휘트니스 클럽

개인 (월) ₩ 300,000

회원특전

- 사우나, 체력단련장, 수영장 무료이용
- 레스토랑 이용시 10% 할인
- 객실 이용시 50% 할인
- 요가, 에어로빅, 수영 단체레슨 무료

상담문의 062-228-4711, 2/221-4101, 3

Shin Yang Park Hotel
MEMBERSHIP HOTEL & FITNESS CLUB